

방송제 기획 줄거리:

[제목 :]

기획 - 권우현

촬영 및 편집 -

출연1 - 문태훈 (김현섭)

출연2 - 임수영 (지연진)

출연3 - 정민구 (정서준)

출연4 - 양정인 (강여진)

출연5 - 최옥만 (주승현)

출연6 - 유복희 (신유진)

S#1 (아나부스 안)

(페이드 인)

(총 소리가 울렸지만, 최옥만은 살아있다.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는 가면. 옥만은 깜짝 놀란다.)

가면: 의외네요.

옥만: (눈을 다시 뜨며) 뭐하는 거지?

가면: (가면을 벗으며) 정말 의외네요.

옥만: (매우 놀라며) 유복희...! 너...!

복희: 최옥만씨가 그런 선택을 할 줄 몰랐어요.

옥만: 처음부터, 네가 모든 걸 계획한 것이었나?

복희: 왜, 자신을 살리지 않았죠?

옥만: 대답할 이유 없다.

복희: 음... 내가 아는 최옥만씨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

옥만: (의아하다는 듯) ... 나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군.

복희: (살짝 광기에 절어 웃으며) 그럼요~ 아주 잘 알죠? 최옥만씨도 기억하시던데요?

옥만: 기억한다고?

복희: 네, 그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건” 기억하시죠?

옥만: (기억을 더듬다가) 그 사건.. (복희를 보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복희: 제가 모르면 안 되죠? 제가 그 사건의 주인공인데?

옥만: 네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그럴리없어. 그 사건의 범인은 남자였으니까.

복희: (부스 안을 이리저리 걸으며) 음~.. 그렇네요. 세상은 범인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옥만: 설마..?

복희: (갑자기 정색하며 옥만을 바라본다) 근데, 저도 주인공 맞아요. 그 사건의 피해자.

옥만: 그럼 네가 그때 그 아이...

복희: 네, 저 서연이에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 때, 당신이 포상에 눈이 멀지만 앓았어도.. 뭐 이젠 다 늦었지만요.

(과거 복희, 아니 서연이가 가정 폭력을 당하던 때를 잠깐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옥만이 형사이던 시절, 서연의 아빠를 잡을 수 있음에도 더 큰 포상을 위해 서연의 아빠가 서연을 팔아 넘길 때 까지 침묵하던 옥만의 과거 회상.)

옥만: (고개를 떨구며) 그 때는 너무 어렸어..

복희: 뭐, 이해는 하는데 용서가 되지는 않네요?

옥만: ... 미안하다. 복희.. 아니 서연아.

복희: (눈썹을 찡그리며)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따위 듣고 싶은게 아니야. 말해봐. 왜, 스스로의 목숨을 살리지 않았지?

옥만: (잠깐의 정적이 흐르다) ... 그 날의 일을 나도 많이 후회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지.

복희: (감정이 격해져서) 닥치라고! 그딴 거 듣고싶지 않다고 했지!

(복희의 화에도 옥만은 곳곳이 자신의 얘기를 한다.)

옥만: 그래서, 그만 됐다. 얼마 안가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뿐이다.

복희: 고작 그만 이유라고? 그 때 그 이기심은 어디갔지? 지금은.. 하..

(복희는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려다 이내 마음을 가라앉힌다.)

복희: 여기에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는 알아요?

옥만: 너의 복수심 때문이겠지. 근데 이게 옳은 건 아니야. 서연아 이 일을 그만..

복희: (옥만에게 총을 겨누며) 닥쳐, 나한테 지적질 하지마.

(다시 복희는 총을 거두고, 잠시 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말을 이어나간다.)

복희: (겨누던 총을 거두며) 후... 당신이 말하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복희: 지금부터 왜 이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지 얘기해 줄게요.

복희: 먼저 문태훈, 주변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사설 토토나 하는 기생충 같은 놈이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복희의 말과 동시에 문태훈의 과거를 잠깐 회상합니다. 불법 도박을 하고 유흥을 즐기는 문태훈의 모습을 넣어주세요.)

복희: 그 다음은 양정인, 학교 폭력의 주범이었죠. 그 값싼 입으로 비싼 목숨을 앗아가는..

(양정인의 과거를 잠깐 회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반 친구들을 따돌리는 양정인의 모습을 넣어주세요.)

복희: 정민구, 그 알팍한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뭉쳐져 인터넷에서 글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질 떨어진 놈이었죠.

(정민구의 과거를 잠깐 회상합니다.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의 악플을 달고,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정민구의 모습을 넣어주세요.)

복희: 그리고 임수영. 그녀는 자신의 주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죠. 뭐, 그 상대가 죽은 건 그 스스로가 나약한 점도 있지만.

(임수영의 과거를 잠깐 회상합니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남자친구는 임수영에게 명품을 갖다 바치다 생활고에 시달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회상 장면.)

복희: 그리고 당신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난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 곳에서 치우는 것일 뿐이고.

옥만: ...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됐군.

복희: (어깨를 으쓱인다) 뭐, 당신들한테는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한테 제가 천사일걸요?

옥만: ... 이제 어쩔 셈이지

복희: 음.. 글썄요? 최옥만씨가 저번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여기서 나가서 메시지를 전달 해야하니까 한 명은 남길거라고. 솔직히 저 깜짝놀랐어요.

옥만: 그럼, 임수영을 내보내라.

(옥만의 말에 복희는 임수영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다)

복희: (임수영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위선자,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이익만 알고 자신이 젤 소중한 그런 인간이잖아.

옥만: 맞아. 그래서 임수영을 살리려는 거다. 나보다 그녀가 살기를 바라니까.

(옥만의 말이 끝나고 복희는 생각에 잠긴 듯 아나부스 안을 한참을 걸어다닌다 그러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 복희)

복희: (한참을 걷다가) ... 좋아요, 그럼 마지막 게임을 진행할게요. 마지막 게임은 “선택”이에요. 지금 최옥만씨를 풀어줄게요. 그리고 총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저를 쏘고, 이곳에 임수영씨와 영원히 갇힐 것인지. 아니면 임수영씨를 쏘시고, 이곳을 나갈 것인지.

(옥만을 풀어주는 복희. 그리고 옥만에게 총을 건넨다. 총을 건네 받는 옥만. 그리고 옥만은 생각에 빠진다.)

복희: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은 넉넉히 드릴게요.

(한참을 고민하던 옥만. 이내 총을 옆에 던진다. 그리고 수영을 들어 안아 밖으로 향한다.)

옥만: (총을 던지고, 수영을 들어 밖으로 향한다.)

복희: (옥만의 행동에 당황하며) 지금, 뭐하시는 거죠?

옥만: 내 선택은 너를 쏘지 않고, 임수영과 함께 나가는 것이다.

(옥만이 아나부스 밖으로 나가고 복희는 한 대 맞은 듯 얼굴이 멍해진다. 그러다 웃음 터트리며 복희. 그리고 전화가 걸려온다.)

복희: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전화 소리)

복희: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 (NR) 어떻게 할까요?

복희: 열어줘. 어차피 언젠간 다시 볼테니까.

???: (NR) 네, 알겠습니다.

(복희의 통화가 끝나고 장면이 넘어가서 옥만이 수영을 들고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옥만: (1층 문 앞에서) 제발 열려라..

(열리는 문으로 옥만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방송국 안에서 빠져나가는 옥만을 바라 보는 복희)

복희: 또 봐요. 우리.

(페이드 아웃)

S#2 병원 안

(페이드 인)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영. 그녀의 눈동자는 한없이 공허하다. 그저 창문 넘어 하늘 만을 바라보고 있는 수영. 무엇을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수영: (창문 밖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페이드 아웃)

S#3 경찰서 (<- 할 수 있을까?)

(페이드 인)

(서로 복귀하는 옥만의 모습. 무언가 결연한 모습이다.)

(페이드 아웃)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자막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6개월 뒤?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4 집 안

(페이드 인)

(누군가가 태훈이 처음 초대장을 받았던 것처럼 초대장을 읽고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 에이 씨, 누가 이런 장난을 쳐 놓은거야. 뭐야 내 이름이 있네?

(???는 초대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 (목소리를 점점 작게) 여보세요? 아니 누구신데, 이런 장난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페이드아웃)

S#5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방송국 중앙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상황.)

???: 안녕하세요. 저는 XXX입니다.

???: 저는 XXX이고,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룰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소개와 테이블에 놓인 룰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도중 문이 열린다. 모두 문이 열리는 쪽으로 시선이간다. 이 때 누구 한명이 책상에 앉아있다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1인칭 연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시선을 올리며 들어온 사람을 확인합니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사람이 들어온다.

???: 안녕하세요~ 저는 유복희라고 합니다!

???: 아, 복희씨! 반갑습니다 이 쪽으로 오세요!

복희: 네~!

(마지막엔 복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번에 소심한 모습과 달리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페이드 아웃.)

Ep6. END